

「의회정답」 정답게 나누는 정치이야기



##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

김영희 (과산군의회 의원)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 정책 수립의 기초를 기존의 원활한 교통 확보 목적에서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반복되는 여러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어린이들의 통학로 주변의 보행안전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통학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너무 많다. 어린이 시점에서의 보행환경 조성은 아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안전을 위한 시설과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먼저는交通安全시설에 대한 점검이다. 횡단보도 등의 노면 표시, 안내 표지판, 신호등, 단속 장비 등을 점검해 안전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불합리한 도로 운영 체계는 개선해야 한다.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마찬가지다. 표지판,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 노면 포장, 과속방지턱 등의 노후도와 설치 규격 등을 살펴보고 노면 불량, 무단횡단, 과속 등으로 이어지는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보도는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이다. 쓰레기, 노상 적치물 등으로 인해 협소한 보행

공간과 보행 동선이 단절되는 곳이 많다, 보도 신설과 확폭, 통학로 정비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먼저겠지만,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의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불법 주정차 등의 교통 지도 단속과 더불어 어린이의 시야를 방해하는 전신주 이설, 가로수 정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군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역점을 두는 과제 중의 하나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개선이다. 초등학교 주변 등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고, 군청 담당 부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아이들에 대한 안전 보장이 없다면 괴산군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책과 예산만 있다고 어려움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군청 담당자들은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민원에 부닥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업 과정 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규제와 제한, 단속 등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생활과 생업 등에 어려움이 생겨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반대 민원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양보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고마운 일이다. 정책의 수용성 향상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서적인 공감과 교감인 것이다.

지역사회의 무관심에 더해진 기초질서의 위반에 대한 둔감과 무분별한 관용이 결국에는 통제되지 않은 지역 쇠락으로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마저 상실되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2023년의

오늘 괴산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대목일 것이다.

어린이 안전 정책의 본질은 일상을 관통하는 안전성의 확보가 어떤 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아이들에게 위험을 회피하는 “기술” 보다 안전을 추구하는 “문화” 를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겠는가.